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KBS '개그콘서트'



MBC '코미디에 빠지다'



SBS '웃찾사'

지상파 코미디 3파전... 웃을 준비 됐나요?

'개그콘서트', '코미디에 빠지다', '웃찾사' 일요일 경쟁

KBS 2TV '개그콘서트', MBC TV '코미디에 빠지다', SBS TV '웃찾사' 등 지상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3파전이 시작됐다. 토요일 심야에 방송되던 SBS '개그투나잇'이 지난 2003~2010년 시청자를 만나던 이름인 '웃찾사'로 재정비하고 일요일 오전으로 시간대를 옮긴 것. '웃찾사' 뿐 아니라 '개그콘서트'와 '코미디에 빠지다'의 관계자들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 2TV '개그콘서트', MBC TV '코미디에 빠지다', SBS TV '웃찾사' 등 지상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3파전이 시작됐다. 토요일 심야에 방송되던 SBS '개그투나잇'이 지난 2003~2010년 시청자를 만나던 이름인 '웃찾사'로 재정비하고 일요일 오전으로 시간대를 옮긴 것. '웃찾사' 뿐 아니라 '개그콘서트'와 '코미디에 빠지다'의 관계자들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졌다. 예전이라면 전과를 탓을 프로그램도 이제는 켈리타가 높아져 못 나갈 수도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제작진은 특히 이윤석·고명환·김경식 등 새로 투입되는 고참 개그맨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 <SBS 웃찾사>는 14일 2년만 만에 부활한 SBS '웃찾사'가 코너 사이사이에 들려준 음악은 권의 '돈 스탱 미 나우(Don't Stop Me Now)'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웃찾사'는 빠른 전개를 무기로 삼은 공격적인 새 코너를 연달아 선보여 '출발 드림팀 2' 'TV쇼 진품명품' '신비한TV 서프라이즈' 등 경쟁 프로그램 사이에서 자리 잡겠다는 포부다. 이영준 PD는 "기다리는 것 없이 처음부터 웃기면서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끼리는 3초에 한 번씩 웃기자고 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그동안 주춤하던 시사 풍자도 과감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5일(음 3월 6일辛亥). 운세 정보: 36년생 다양해지면서 변화의 폭이 커진다. 48년생 핵심을 쥐고 있는 형상이다. 60년생 마무리는 자신이 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가리라. 84년생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28, 60. 42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54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66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78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행운의 숫자: 05, 48. 37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봐야 한다. 49년생 발걸음에 비단 옷을 입고다니는 격이다. 61년생 장고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73년생 참으면 여러 날이 편해진다. 85년생 급격히 어떤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81, 88. 38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50년생 반드시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62년생 작은 진통은 있으나 파산한 봄날을 예고하고 있다. 74년생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63, 09. 39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리라. 51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63년생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75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악화 되리라. 행운의 숫자: 95, 36. 40년생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리라. 52년생 보이지 않는 뒷에 걸릴 수도 있다. 64년생 축적해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니라. 76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행운의 숫자: 24, 44. 41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러기만 살고 있는 형상이다. 53년생 애매우며 기다리던 보람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다. 77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69, 3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5:00 월드 뉴스 리뷰, 06:00 건강한 아침, 07:00 나의 성공비결, 08:00 닥터 김, 09:00 코코몽, 10:00 KBS 뉴스, 11:00 KBS 뉴스, 12:00 KBS 뉴스, 13:00 KBS 뉴스, 14:00 KBS 뉴스, 15:00 KBS 뉴스, 16:00 KBS 뉴스, 17:00 KBS 뉴스, 18:00 KBS 뉴스, 19:00 KBS 뉴스, 20:00 KBS 뉴스, 21:00 KBS 뉴스, 22:00 KBS 뉴스, 23:00 KBS 뉴스, 24:00 KBS 뉴스.

Language learning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Japanese. Topics include 'What are you looking for?', '孤城落日(고성낙일)', '貧二代 pín èr dài', and '雨が降っています.'.